

# 지엠피, IPEX서 HP와의 파트너십 과시 뛰어난 기술력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지엠피(대표 김양평)는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10년 IPEX전시회에 참가, 최신제품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는 지엠피가 HP로부터 Finishing Partnership 부문에서 Gold 파트너십을 획득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국제전시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지엠피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지엠피의 장비 3점이 후가공 라인에서 HP 인디고의 인라인으로 전시되어 세계 각국에서 전시장을 찾은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지엠피가 HP와 맺은 골드 파트너십은 지역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범위에서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구매고객과 별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이후의 납품, 전체 작업라인의 구성이나 추후 A/S등 관리를 해야 할 때는 합동으로 팀을 꾸려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HP의 인라인으로 출품, 전시된 지엠피의 다양한 장비들은 새로운 성능과 뛰어난 사양으로 관람객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받았다.

한편, 이번에 출품된 지엠피의 제품군 가운데 라미네이터-34는 HP 인디고 디지털프레스 WS6000p와 함께 구성되었으며 UV코터 코트마스터-In3752UV는 HP 디지털 프레스 W7500과 함께 라인을 구성했다. 전시회 동안 지엠피에서 디지털인쇄를 위해 개발한 전자동 라미네이터 EUROLAM-520DUAL과 PIONEER-5000 및 전자동 UV코팅기 EURO COATER 등은 전시회 기간 동안 화두였던 급성장하는 디지털 인쇄시장의 표면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품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콤팩트하고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엠피의 장비들은 부분코팅 및 전면코팅이 가능한 SPOT 광택보전 및 UV코팅기 'EUROCOATER-PLUS 5680 SPOT'을 선보였다. 이 장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소규격 인쇄물용 부분 UV 및 전면 UV 코팅기로서 전자동시스템이다. 수지판을 사용하여 간편한 코팅작업이 가능하고 누구



나 손쉽게 작업이 가능한데다. 콤팩트한 디자인에 무광 서멀라미네이팅 후 부분 UV 코팅시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품이다. 이외에도 GMP는 높은 평활도와 고광택의 유광라미네이팅, 용제와 접착제 손상이 없어 반짝임 및 미세기포인 실버링이 없는 무광라미네이팅을 선보였다. 또한 FDA 승인 레진 공압출 필름도 이번 전시회에 함께 선보였다. 지엠피의 필름은 친환경성과 완전 경화되는 강력 접착성으로 관련업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GMP의 파이오니아 서멀라미네이터는 접착제가 필요 없는 친환경적인 장비이며 모든 종류의 인쇄물에 완벽히 접착된다. 미세기포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터치 패널인 독일 지멘스 모터, 드라이버, PLC 제어시스템으로 운용돼 운전 및 사용이 편리하다. 새 필름제품에 있어서는 옥수수, 감자 또는 밀 등으로 만든 GMP Bio Degradable Green 필름 시리즈와 PVC용 대체필름인 친환경 PSA필름, New Polynex 필름도 전시되었다.

지엠피의 관계자는 HP의 골드파트너십 인증을 획득하고 세계 시장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은 회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아야 할뿐더러 어렵고 힘들어도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해오면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골드파트너십을 맺기 위한 인증 획득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음은 물론 철저하고 혹독한 과정을 견디어내야 했다는 것이 지엠피측의 설명이다. 또한 그것도 수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준비과정을 잘 마무리한 것은 매우 놀랄만한 성과라는 평을 파트너인 HP로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엠피는 HP로부터 후가공 부문에 있어서는 지엠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극찬을 듣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작업환경에 놓이더라도 변함없는 꾸준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세계시장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글로벌기업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